

# “SSM 확산 막고 햇살론 문턱 낮춰달라”

광주·전남 소상공인 위원회서 강력 요구

대·중기 동반성장 대책 실효성 등 집중 논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에 대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과 SSM 규제조례 제정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래)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으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양종균 이사장과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김호대 지회장, 양동복 개상가(주) 손종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및 직능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SSM 확

산에 대응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 쟁취, 광주시의 SSM 규제 조례제정 추진 등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요구가 이어졌다.

또 정부의 인하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중소 기맹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카드 제도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집중됐다.

손종호 양동복개상가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이 침범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여러 분야 소상공인들이 뭉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규 금호월드시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시장은 여전히 보호 대책이 있지만 금호월드 450여개 영세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인근 담양·장성·화순 고객도 대형마트로 몰리면서



30% 이상 매출이 줄어 지원이 절박하다”고 하소연했다.

윤명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여러 소상공인 위원회 SSM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고, 장수기업이나 가업승계 기업들에 대한 혜택과 보호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낙중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장은 “정부의 규제로 일반보증은 취급하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햇살론도 대출금리가 10~13%로 높은데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으로 소득증명이 곤란한 자영업자는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보

증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일 반보증한도 증액과 햇살론 금리인하가 절실히다”고 건의했다.

염철승 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부회장은 “고용창출을 위해 광주지역 1만 4000여 음식점에 무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광주·전남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강정섭(새마을금고연합회 광주·전남지회장) 위원장이 사업하고 양종균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새 위원장에 선출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 라마다광주호텔 두돌 고객 사은행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대표 김대원)이 개관 2주년을 맞아 11월 한 달 동안 식당업장 10% 할인 등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지역 첫 특1급 호텔로 지난 2008년 10월 23일 문을 연 이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FISU(세계대학스포츠연맹) 실사단 방문, 세계한인무역 협회 워크숍 등 광주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광주를 대표하는 특급 호텔로써 해마다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 장애인 가족 등을 초청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여는 등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며 고급 호텔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은 개관 2주년을 맞아 11월 한 달 동안



1층 레스토랑, 2층 피트니스&스파&테라피, 3층 일식당 비쇼, 17층 파라비 레스토랑&바 등 레스토랑과 부대시설 이용고객에게 10% 할인제공하고 투숙객을 위한 객실 패키지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국민은행 업무공백 최소화 총력

### 지점장 200여명 등 역대 최대 3247명 희망퇴직 신청

국민은행이 역대 최대 규모의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5일 부점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교육 연수 중인 부점장 등 45명을 영업점에 배치할 예정이다.

최근 희망퇴직을 신청한 영업점장 200여 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부점장을 이날 조사역으로 발령낸 뒤 다음 달 11일 정식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새 지점장이 배치되는 않는 지점은 선임급 직원이 지점장을 대행하거나 인근 지점의 점장이 2개 영업점을 동시에 관리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또 내달 8일 직원 수백 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 11일 텁킹급 이하 직원 3천여

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해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포석이다. 국민은행이 실시한 희망퇴직 접수에 신청한 직원은 지점장 200여 명을 포함해 3247명이며 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퇴직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휴지 중인 직원 중 휴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직원들의 시간을 진작시키기 위해 내년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연말로 앞당겨 실제로 우수한 직원들을 지점장 등으로 승진시킬 계획이다.

또 기준 점포보다 인력이 3~5명 적은 소규모 점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점포장 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11월 3일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이라 거의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버뱅기 연준 의장이나 각 지역 이사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양적 완화의 수위가 도시락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나 G20 재무장관 회담 결과에 따른 환율 움직임 등 정치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였으며, 다른 하나는 중국의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였다.

둘째 글로벌 증시가 기댈 언덕이라는 점에서 주체 유가 중요한 시점이다. 또 두 변수의 주체는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를 변수의 방향을 결정할 정치 이벤트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달러 약세와 관련해서는 11월 3일(미국시간)에 있을 FOMC의

## ‘신한은행 골드바’ 판매 1천개 돌파

출시 39일만에 114억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자행 로고를 새긴 ‘신한은행 골드바’가 출시 39일 만에 1천 개 이상 판매됐다고 24일 밝혔다. 판매액은 114억 원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었다.

지난 8월 20일 출시된 신한은행 골드바는 1킬로그램(Kg)과 100그램(g) 2종류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 실적이 수입 골드바에 비해 2.2~2.5배에 달하고 있다. 신

한은행이 판매 중인 금 관련 상품은 골드바 실물과 골드리슈 금 적립·입출금 통장, 골드기프트서비스 등이며 골드바 구매 시에는 실물 비용과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달러로 가입하는 골드리슈 달러 앤드골드테크 통장은 원·달러 환율 변동 시 환차손을 피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22일 현재 11.82%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 환산率 47.29%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신장세다.

현대카드 회원 수는 2008년 6월에 695만명에서 2009년 6월 823만명, 올해 6월 922만명으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100만명 안팎이 증가하는 기법을 토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의 회원 수가 1년 만에 100만명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경기가 점점 회복세를 타고 그에 맞춰 카드사들도 마케팅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경기회복 신호탄? 카드 회원수 급증

신용카드사들이 경기 회복세에 맞춰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한·롯데 카드의 신장세가 눈에 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회원 수가 1481만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달 (1387만명)보다 94만명 증가했다. 이 역시 2008년 6월(692만명) 이후 1년 간 27만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월등

신한카드의 회원 수가 2008년 6월 1368만명에서 이후 1년간 19만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약 5배가량 증가해 큰 차이를 보였다. 롯데카드는 올해 6월 현재 회원 수가 814만명으로 집계돼 1년 동안 95만명이 증가했다.

## 외국인 매매 동향에 탄력적 대응

중국의 금리 인상 등 정책 변수로 인하여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지수가 재차 19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코스피지수가 회복세를 보인 것은 지수 조정에도 종목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았고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도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나 G20 재무장관 회담 결과에 따른 환율 움직임 등 정치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였으며, 다른 하나는 중국의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였다.

한편, 경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11월에 있을 정상회담의 결과에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 미국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 환율 전쟁을 공조로 비울 것인지 여부이다.

만약 원만한 합의 없이 회의가 마무리될 경우 환율 전쟁이 이어지고 나아가 보호 무역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중국의 소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외국인 매수와 더불어 중국 소비재 수출이나 원화 강세 수수주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버뱅기 연준 의장이나 각 지역 이사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양적 완화의 수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번 주 이후 연준이 차운이나 정책의 구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수 변동이 확대될 수 있으며 외국인 매수에 영향을 주는 달러 움직임도 이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경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11월에 있을 정상회담의 결과에 이어질 가능성성이 큰 상황에서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 미국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 환율 전쟁을 공조로 비울 것인지 여부이다.

원만한 해결을 전제로 할 때 IT와 화학, 정유 및 자동차, 조선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중국 종목과 중국에 진출한 저가 화장품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인 매수가 확대될 경우 중국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유리할 전망이며, 관광세를 보일 경우는 중소형 종목이나 저평가 소외주 중심의 탄력적인 대응이 적합할 전망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 책임이다!

## 개념원리 노트필기 세계최고 特殊秘法 강의 전국 강타! 초등 4학년 이상이면 3개월에 중 3수학까지 공부 끝내줘!

### 초등학교때 수학우등생이 왜?

#### 중학교에 가서 수학을 포기할까요!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학원, 과외를 안 시켜서? 책이 나빠서? 선생님이 성의가 없어서?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00% 개념원리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풀이가 주제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적교적 답만 썼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노트필기식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수학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첫째, 수학전문용어를 학생들이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의 개념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도표나 그림 등으로 배운 개념을 중학교때부터는 수학전문용어로 모두 바칩니다. 이 전문용어들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이 안 됩니다.

둘째, 개념과 원리(적용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념과 원리를 모르면 유형별 문제풀이에 치중하여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마다 다시 배워야 하고 결국 수학은 끝까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됩니다.

셋째, 수학의 각 영역별 연계성을 알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분수, 나눗셈, 소수, 비례식, 퍼센티지, 할분리 등은

따로 배워야 할 다른 영역이 아니라 같은 개념입니다. 수학의 각 영역은 서로 연계됩니다.

### ★ 오창영(논리수학이란)?★

- 1 무학년제 영역별 연계학습 프로그램이다.
- 2 개념과 원리를 원천 이해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 3 논술/시술형 문제를 대비한 프로그램이다.
- 4 특수